

大學의 民主發展에 즈음하여



全南大 總長 吳 炳 文

나는 비교적 장기간의 교수 생활에서 總長이라는 重責과 召命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總長職이 日淺하여 過誤가 있었고 試行錯誤도 많았다는 것을 自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나 시행착오가 개인의 문제나, 대학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하는 것도 反省해 본다. 나 개인의 문제라면 良識과 良心에 따라 歷史의 罪人이 되지 않게끔 決斷을 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의 문제라면 大學의 位相을 民主化와 自律化에 맞추어 共同體의 運命 속에서 眞理의 燄터가 되도록 再照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국가의 문제라면 모든 政治가 民主化의 意志에 따라 國民의 合意가 이루어져 국가의 기반이 튼튼하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民主化와 自律化의 志向性은 강렬하나 混沌, 對立, 相互矛盾의 不透明 狀態가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民主主義도 通念的 水準에서 보면 民이 主人이고 國民的 合意가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몇 천 년 동안 피와 땀과 희생을 다하여 오늘의 민주주의를 성취시켜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國民들의 知性的 척도와 敎育의 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도 보다 훌륭한 發展模型이 創出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란 完成目標가 아니고 志向目標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獨立 이후 民主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것은 어느 면에서 制度上의 民主化, 法律上의 民主化라고 볼 수 있다. 運營의 民主化, 生活과 行動의 民主化, 특히 意識構造의 民主化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현재로서는 大學人이나 國民 각자의 意識構造의 轉換이 급선무이며 民主化를 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와 관용의 미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現實의 情況을 보면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思考의 段階, 즉 過程의 단계는 풍요하게 전개되나 思索과 歸結의 단계는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다. 現實과 理想, 現在와 未來, 具體와 抽象의 의식 현상이 공존·병행·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思考의 기능은 만발하

지단 思索과 省察의 기능에서 보면 無秩序·混沌·無規範 상태를 推定하게 된다. 政治的 現實이나 教育의 現實도 다를 바가 없다. 政治圈과 教育圈의 혼돈, 眞實과 虛僞의 공존, 信賴와 不信의 병행, 自律과 他律의 무분별한 의식 구조 등이 동시적으로 포출되어 안개 속의 人間像을 聯想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 의로운 정치가 있기를 國民들은 원하고 있다. 교육권에서는 국가 인력 자원의 養成과 配分을 위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양자간에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民主主義란 각 개인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헌을 할 때 성숙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한다. 農夫는 농사에 충실하고 學生은 삶과 죽음의 知慧를 배우며 教授는 眞理의 등불을 밝혀 國民을 계도하고 罪人은 국토 방위에 전념할 때 국가와 민족의 생명력은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역할 기대와 행동이 상반하여 葛藤을 일으킬 때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체는 파괴되리라고 생각한다. 政治와 教育의 限界性和 共存性을 상호 이해하고 명백히 선을 그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處方과 對策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과 거짓도 공존하고 있다. 착한 것이 끝까지 착하지 않으면 惡이 될 것이고 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식된 사랑이 될 것이다. 良心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고 善惡도 분명하다. 현재는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며 거울이 있어도 兩面을 동시에 反射하기 때문에 昏迷의 素地를 안고 있다. 생각하면 정직하고 순진한 白衣民族의 位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反省과 省察의 기회도 가져야 될 시점이다.

다음에는 믿음과 不信의 병행이다. 가장 염려스러운 徵兆는 불신 현상이다. 人間이 인간을 不信할 때 행동의 양태는 殘忍性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國民이 정부를 불신하고 학생이 교수를 불신한다면 그 기관이나 인간의 存在 價値와 意義를 상실하게 된다. 信賴의 基礎 구축과 회복은 政治의 과제이고 教育의 과제이며 모든 國民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自律과 他律의 무분별한 의식 구조의 혼란이다. 民主化는 자율화를 전제로 하며 自律化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하며 責任을 受納할 때 自律의 概念이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年上層일수록 保守의이며, 타율적 행동 양식의 硬直性을 나타내며 年下層일수록 自內放任의인 自律을 강요하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된다. 眞實한 自律에 대한 意識의인 省察과 覺醒 그리고 教育的인 對策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大學人에 있어서 자율적인 의식 구조의 전환은 學生에 대한 정확한 自律의 行動을 정착시키는 데 하나의 契機가 되리라고 본다. 타율적 의식 구조에 물든 사람들이 상대방에 자율을 강요한다면 타율도 아니고 자율도 아닌 畸形像을 낳게 될 것은 자명한 眞理이다. 상대방에 자율의 강요보다는 자신의 자율적인 의식과 행동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大學이 民主的으로 발전할 수 있는 核心的 要因은 각 대학마다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自

治權의 認定이다. 大學의 自治權이 인정될 때 大學의 民主化·自律化도 활성화되리라고 믿는다. 統制와 劃一이 강하면 강할수록 他律的 性格을 脫피하지 못하고 大學의 民主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政府나 文敎部도 中央集權 체제에서 地方分權 체제로 轉換과 기능과 역할을 移讓하여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중앙 關係 부처는 調整과 牽任 機能이라는 지원 체제의 성격을 가질 때 大學은 自治的으로 운영될 것이다. 自治權의 인정 이 大學의 民主發展의 母體가 되지만 각 大學(校)의 경우 최소한도의 基本的인 시설과 財源이 均일하게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自治가 인정될 때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서울과 地方, 지방과 지방에 따라 政治權의 影響을 받아 계속적으로 불균등한 처우와 낙후 현상이 가중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不均衡·不平等 요인을 전제로 한 균형 발전을 시도하여 왔기 때문에 大學의 隔差는 감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균형을 전제로 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大學이 多樣化되고 特性化되며 民主化되리라고 생각한다.

大學이 民主的으로 발전하려면 大學人의 민주적 의식 구조의 轉換이 필요하며 過渡期의 現象으로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와 寬容의 美덕이 요구되며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루속히 政治圈과 敎育圈의 混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大學 본연의 자세에 歸依하는 自治權의 인정과 보호가 絶실히 요청된다. *